

건강 칼럼

야외활동 잦은 가을, 소아 정형외과 질환 '이렇게' 대처하세요

어느 해보다도 뒤늦게 걸렸던 여름이 가고 아찔거리며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이제야 비로소 가을이 찾아오는 모양이다. 가을은 남녀노소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이다. 특히 뛰어놀기 좋아하는 아이들의 땀을 식혀주기에 제격이다. 다만 그늘기에 자칫 급작스러운 사고를 당할 위험성 또한 높은 계절이기도 하다.



민재정
대전을지대병원 소아정형외과 교수

특히 소아의 경우 걸로 보기에 단순한 타박상 정도에도 실제로는 관절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는 데다 성장판까지 다칠 가능성도 있어 각종 외상을 가까이 넘겨서는 안 된다. 소아 뼈의 특징과 안전사고에 따른 대처법에 대해 알아본다.

△성인 뼈 vs 소아 뼈, 무엇이 다른가
성인의 뼈에 비해 소아의 뼈는 크게 세 가지가 다르다. 첫 번째는 '유연성'이다. 성인의 뼈가 마치 유리처럼 단단하다면, 소아의 뼈는 따뜻한 곳에 잠시 놓아둔 엽기처럼 유연하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 소아정형외과 민재정 교수는 "소아의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잘 부러질 수 있으며, 소아 골절은 여러 조각으로 부서지는 형태보다 대개 두 동강이 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 두 번째로 성인의 골막보다 소아의 골막은 아주 질기다. 골막은 뼈를 싸고 있는 막으로, 뼈를 보호하고 뼈에 혈액을 공급한다. 성인의 골막은 비닐봉투처럼 아주

얇은데 비해 소아의 골막은 가죽같이 아주 두껍고 질기다. 따라서 소아 골절은 골막의 보호로 심하게 어긋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다.

세 번째, 소아의 뼈는 계속해서 자란다. 소아의 뼈 양쪽 끝에는 성장판이 하나씩 있다. 성장판은 사춘기 무렵이면 잘라 사라지는데, 이 때문에 소아의 뼈는 어느 정도 정렬만 되면 성장하면서 정상에 가깝게 재형성이 일어난다. 따라서 소아 골절은 수술 대신 깁스 치료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팔 빠졌을 땐 '빨리 응급실로'
3세 미만의 소아에서는 팔 빠짐(탈구) 사고가 흔하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한 가지 예로 부모가 아이의 팔을 각각 한쪽씩 잡고 들어 올려주던 아이가 부모의 팔에 의지한 채 발을 땅에서 떼어 놓 때오르는데, 이때 팔이 잘 빠진다. 팔꿈치 관절 인대가 약하기 때문이다. 연령이 낮을 경우 자신의 증상을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데, 보통 팔을 움직이기 싫어하는 것으로 대신 표현할

수 있다. 팔이 빠지면 팔을 들어 올릴 수 없는데다 엄청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다. 외관상으로는 한쪽 어깨가 내려가고 축 처져 보일 수 있다.

이럴 땐 가까운 응급실을 찾아 탈구된 관절을 다시 맞춰야 한다. 맞추고 나면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이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된다.

만약 아이가 하루 이상 통증을 계속 느끼거나 여전히 팔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보인다면 관절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거나 골절 등의 다른 문제가 생겼을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팔목 빠졌을 땐 '4주 발목 고정'
'열좌'라 불리는 발목 뼈인 사고는 대개 초등학교 고학년 이후에서 많이 나타난다.

체중도 늘고 축구나 농구 등 체육활동의 강도도 격해지면서 발생할 확률 또한 높아지는 것이다. 소아에서 발목 염좌가 생겼을 때는 보통 깁스 치료를 하거나 발목 보호대를 착용토록 한다. 여기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은 바로 '지속성'이다. 다친 지

수 일이 지나면 웬만큼 다닐만한 대다가 계속 착용하는 것이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니 풀어두고 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반드시 4주는 발목을 고정해 줘야 한다. 발목을 잘 고정해줘야 인대가 늘어나지 않고 정상적으로 이룰 수 있다. 만약 인대가 늘어나 체로 아물면 특하면 쉽게 펴고 넘어지는 만성 재발성 염좌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판 손상 땐 '주기적인 추적 관찰'
성장판 손상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은 바로 성장판 골절이다. 하지만 성장판이 골절됐다고 해서 무조건 후유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2/3의 확률로 후유증 없이 잘 자라는 것으로 본다. 만약 성장 장애가 발생해 좌우 비대칭을 보인다 해도 정도가 심하지 않으면 별다른 치료 없이 지켜가도 한다.

그러나 약 5~10%의 경우에서 영구적인 성장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 성장판이 손상되면 '골교(骨橋)'라고 하는 딱딱한 골조직이 성장을 방해한다. 이 때문에 뼈가 똑바로 자라지 못하고 휘게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휘거나 짧아지는 정도가 더 커진다. 이런 경우 골교를 제거하고 연결세워나 지방 등을 이식하는 골교 절제술을 고려할 수도 있다.

다리뼈의 경우 성장이 완료된 후 2cm 이상의 차이를 보이면 길이를 맞춰주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성장판 손상 시에는 주기적으로 추적 관찰을 받는 것이 좋다.

사설

효정의 향기 출판기념

지난 5월 국제가정협의회는 한국을 떠나 한국으로 건너온 국제가정 83명의 간증책 '효정의 향기' 출판기념회를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본부 8층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국제가정을 이룬 이들은 한국에 온 지 30년이 지났다. 이들은 지금 살고 있는 지역과 마을에서 중차대한 일꾼으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가슴에 안고 있다.

이들 가운데 83명의 간증을 책으로 출판해 의미가 크다. '효정의 향기'에 새겨진 귀한 이름 한 자 한 자는 하늘이 인정 한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이자 위대한 승리다. 천일국 시대 할 부모님과 같은 시대관에서 살아가는 국제가정의 '전승 기록'이다.

또 미래 세대에 전하는 '사도 행전'이다. 고국을 떠나 한국으로 건너온 국제가정 모두는 위대한 영웅

이다. 이들의 삶은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다. 저출산과 인구 문제 해결의 열쇠도 이들에게 있다. '효정의 향기'는 '한국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헌신적인 삶을 살아온 선교사들의 일대기'이다.

"그 속에 담긴 하늘부님의 사랑과 참부모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선교사들의 고백서다. 이웃과 지역사회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선교사들은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위대한 영웅"이다.

'국가메시아 사명을 위해 아프리카 오지에도 일본 선교사가 있었다'며 문화와 인종, 국가를 초월하여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선교사들의 삶을 간증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길을 걸어가는 선교사들이 비전 2025 승리를 향해 승리하자'고 격려했다. 자녀들까지 축복의 길에 동참하게 된 것은 '참부모님의 귀한 은혜'라고 강조했다.

'여성 사법리스크' 대응 앞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정치권에서 터져 나오는 '여성 사법리스크' 대응을 앞두고 있다. 당내에선 김 여사에 대한 방어 논리만 펼칠 것이 아니라 문다혜 씨의 뇌물죄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한 공세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져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탄압에 대해 "꿈수 회동이자 방탄 동맹"이라고 비판했다. 사법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방탄 동맹'이기도 하다고 규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의 언급대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수사 가능성은 높아진 상황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의 전 남편인 서모 씨가 2018년 이상진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취임 후, 이 전 의원이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

인 타이스타렛에 전무로 취임해 불거진 '특혜 채용' 논란을 수사 중이다. 이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와 부인 김 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 등을 통해 초밥·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당의 공세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 정권 정치탄압 대책위원회' 구성을 선언했다. 김 씨와 관련해선 "이당 대표도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재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의 막장 행태"라고 비판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선 것과 온도차가 있다는 지적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해리스 "대통령 되면 중산층 감세할 것"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캐비지 밀런 대학에서 경제 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 대대적인 중산층 감세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커2' 런던 시사회 참석한 가가와 피닉스



레이디 가가(왼쪽)와 호아킨 피닉스가 2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영화 '조커: 폴린 어 뒤' 시사회에 참석해 포토티임을 갖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